생명 앗아간 '위험한 장난'…옥상 출입문 개폐 또 논란

'용인 캣맘' 사건, 4년전 광주 초등생 벽돌 투척과 닮은 꼴

14세 미만 소년범죄 처벌 연령 놓고 의견 분분

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은 4년 전 '광주 초등생 벽돌 투척' 사건〈광주일보 2011년 9월14일 6면〉과 많은 점이 닮았다. 모두 초등학생들의 장난에서 비롯됐고,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 개방된 고층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점 등이다.

이로 인해 소년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현행법상 개방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 옥상의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장난이 비극으로=지난 2011년 9월8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이 벽돌 반쪽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A(당시 11세)군, 2학년 B(당시 8세)군 등 3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옥상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발에 걸린 벽돌을 아파트 건너편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이 학생들의 키가 아파트 옥상 담장(1.5m 가량)보다 작았던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8일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날아든 벽돌로 인해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용인 캣맘' 사건의 범인도 초등학생 C(9세)군, D(11세)군, E(8~9세 추정)군 등 3명으로 드러났다.

벽돌을 직접 던진 C군은 경찰에서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지를 놓고 놀이를 하다가 벽돌을 아래도 던졌다"고 주장했다.

◇소년범죄 처벌 불가…처벌 연령 낮추는 문제 논란=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의 경우 직접 가해자인 C군은 만 9세로 촉법소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형사 입건은 물론, 소년 보호처분 자체도 불가능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다. 반면 함께 현장에 있던 만 11세의 D군의 경우는 벽돌 투척에 개입했다면 촉법소년으로 송치돼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광주 벽돌 투척' 사건의 경우 당시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부로 송치됐고, B군 등은 C군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됐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당시 '광주 벽돌 투척'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건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는 입건하지 않고,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에 넘기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고, '촉법소년' 규정은 지난 2007년 '만 12세이상~14세미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개정됐다.

◇아파트 옥상 문 개폐 문제=두 사건의 가해자인 초등학생들은 모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옥상 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법에는 화재 피해를 대비해 옥상 문을 개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이 나면 대피로가 제한적이어서 고층세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옥상 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A군 등 초등학생들이 옥상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옥상에 항상 경비원 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도 사실상 파악하기 힘든 현실이다.

경찰은 소방과 달리 옥상 문을 개방하면 추락사, 자살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옥상 문을 가급적 잠그도록 지도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 문을 잠글 수는 없지만 개별 아파트들이 관리사무소 인원 등을 활용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양궁 유망주 꿈 꺾은 '묻지마 폭행' 용의자 검거 네티즌 제보로

'묻지마 폭행'으로 양궁 유망주의 꿈을 꺾은〈광주일보 10월15일 7면〉 용의자가 네티즌의 제보로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전국체전 광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던 고등학생 A(18)군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상해)로 최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A군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욕설을 한 뒤 철제의자로 얼굴 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다.

전국체전에 양궁 광주대표로 출전 예정이던 A군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체전 출전이 무산됐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최씨는 A군을 사건 발생 직전 오락실 주변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사건 당일이 생일이어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폭행 부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A군은 사건 직후 최씨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주지역 커뮤니티에 올려 제보를 부탁했다. 이 내용을 본 한 네티즌의 제보로 최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탈옥 막아라" 수용자 1700여명 오늘 철통 이송작전

광주교도소, 경찰·군과 공조

"프리즌 브레이크(탈옥)를 막아라."

광주교도소가 수용자 1700여명을 19일 하룻만에 삼각동 신축 교도소로 옮긴다. 경찰·군과 공조 작전을 펼쳐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전략이다.

18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사형·무기수 110여명이 포함된 수용자 1700여명을 19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삼각동 신축 교도소로 이송한다. 미결수 900여명, 기결수 800여명이 수용자이고 직원 500여명도 이날 이동한다.

이들은 문흥동에서 삼각동까지 호송차량 수십대에 나눠타고 5~7차례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이송 작전'에는 전국의 교도소 호송차량 수십대가 투입되고, 광주는 물론 인근의 전남·북 교정시설 직원이 동원된다.

경찰과 군도 공조작전을 편다. 순찰차·기동차량·군차량을 동원해 재소자 이송 차량을 입체적으로 호위하고, 교통경찰은 이송 전 구간에서 교통 통제를 맡는다. 군은 보이지 않는 외각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관내 경찰들은 이날 비상 대기한다.

특히, 사형수와 무기수 이송에 이중삼중의 경계를 펼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 통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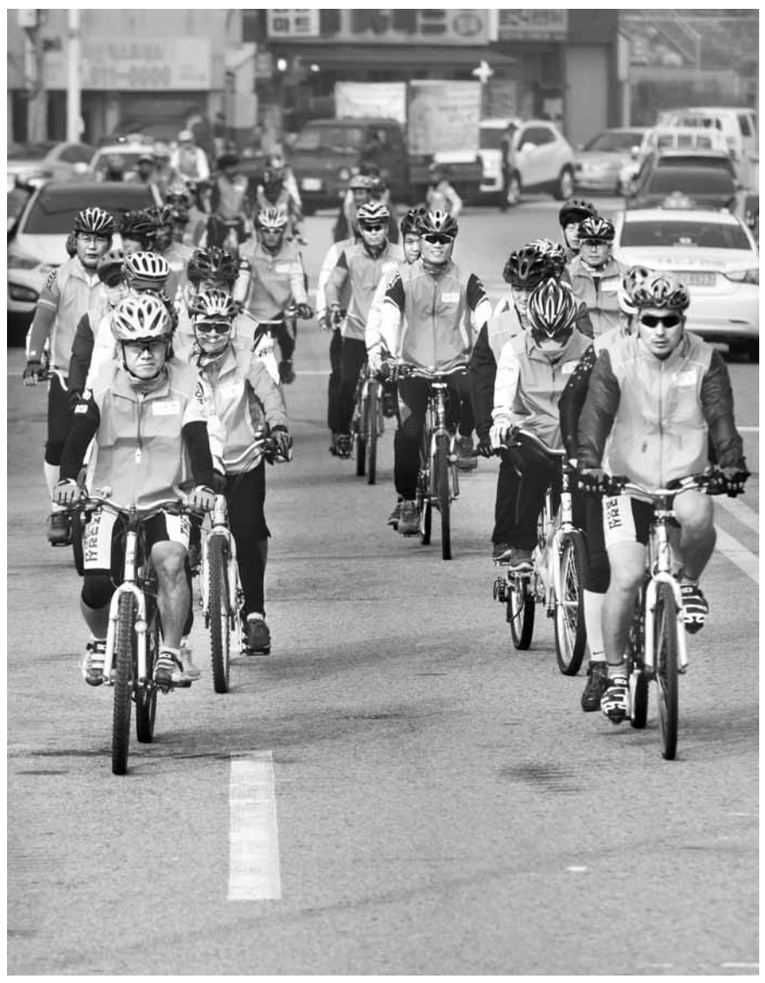
앞서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집기와 수용자들의 물품 등은 먼저 새 교도소로 옮겼다.

광주교도소 이전은 1971년 문흥동에 들어선 이래 44년 만이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교정청과 경찰, 군이 모두 비상 대기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각동 새 교도소는 28만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1개 동 규모다. 수용 시설은 1인실·3인실·5인실로 이뤄졌으며, 수용 인원의 규모는 재소자 1900여명, 직원 500여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두바퀴로 달리는 남도삼백리 '제9회 두바퀴로 달리는 사랑 남도삼백리' 행사에 참가한 '광주 영광원' 원생들과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2인승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광주시내를 달리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회복과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시각장애인인 영광원 원생들과 조를 이뤄 광주 세광학교에서 강진 베이스볼 파크까지 1박 2일 동안 108km를 달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마카오 도박장 적발…경찰이 본 '송정리 역전파'는

"조폭축에 못끼어…국내서 힘 못쓰자 해외로"

프로야구 선수와 국내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마카오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광주 송정리 역전파' 행동대장격인 이모(39)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검거되면서 '송정리 역전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직 폭력배가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해온 점, 국내 프로야구 선수 일부가 해당 도박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이 부각되면서 '송정리 역전파'의 위세 내지는 그 위치가 대체 어느정도냐는 것이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 붙잡힌 이씨가 속한 '송정리 역전파'는 수사 당국이 주시하는 폭력조직 축에 끼지 못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범죄단체)은 충장OB, 국제PJ, 신양OB, 신양관광, 콜박스, 수기동, 신서방, 무등산파 등 8개 조직, 330명 수준인데 송정리 역전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직 수괴(우두머리)가 특정되며 ▲조직 행동강령에 의해 움직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인정받은 폭력조직의 동향만 확인하고 있으며, 송정리 역전파는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송정리 역전파 가담자를 40명 선으로 보고 있으며, 광주 내지는 국내에서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 이씨 등 일당이 해외에서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도박판을 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정리 역전파는 사실상 조폭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패거리' 수준"이라며 "국내에서는 이권에 개입할 힘도, 장소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노리고 해외 도박장을 열어 수수료를 챙기거나 고리대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송정리 역전파 조직원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원정 도박꾼에게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14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돈 더줘" 사돈 식당 방화 기도

쌍나팔

○…5년 전 사돈에게 팔아넘긴 식당에 대해 추가로 돈을 요구해오다 거절당하자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될 위기.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조모(58)씨는 16일 오전 11시20분께 광산구 송정동 A(여·54)씨의 식당에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려다 A씨에게 제지당하자 망치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250만원 상당)을 깨고 달아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조씨는 앞서 지난 3월30일에도 A씨의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그는 "5년 전 내가 운영하던 식당을 3500만원에 사돈댁에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헐값에 판 것 같아 1000만원만 더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뒤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펜션·박물관·미술관·식당·찻집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법인체 인수가(이전비 없음)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슴(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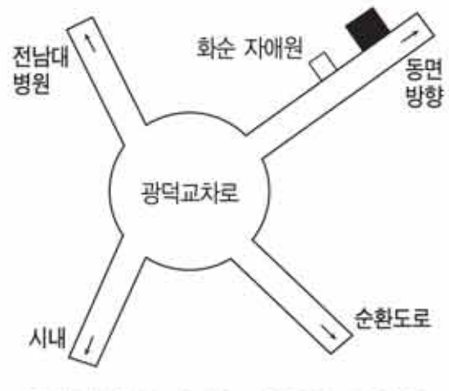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매매 - 22억
동업 - 협의
임대 - 협의
투자 - 협의

주인직매 H.010-3605-5000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전원주택부지



주인직매 H.010-3605-5000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배우면서 투자 가능
▸투자 하실 분!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수익률 - 연 10% 보장

(주)오 천 경 매
H.010-3605-5000